

융복합 시대 휴먼서비스분야 전공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관한 연구

박소정*, 배양자*, 박순희*, 김선애**
동신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A Study on Multicultur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Fields of Human Services for the Era of Fusion and Convergence

So-Jeong Park*, Yang-Ja Bae*, Sun-Hee Park*, Sun-Ae Kim**
Dong-shin University*, Kyung-in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휴먼서비스분야 실천현장에서 요구되는 다문화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대학의 교육 실태와 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한 결과, 문화적 역량 수준은 평균 3.49점으로 중간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경험에 있어서는 외국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거나, 외국인 친구가 있거나,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전공에 따른 문화적 역량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위한 국내 자원봉사활동에도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다문화 역량, 휴먼서비스, 다문화 경험, 전공대학생, 융복합 시대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universities and multicultural compet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overall results are discussed by two sections as follows: The average score of multicultural competence is 3.49, above moderate. The students who rate their multicultural competence high are those who have been abroad, lived in abroad, had foreign friends, or had communicative ability in foreign languag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ulticultural competence among students based on gender and major. Based on the overall results of the study, the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by the researcher as follows: Universities should support students' overseas volunteer program and encoura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domestic volunteer program for multicultural background groups.

Key Word : Multicultural competence, Human service, Multicultural experience, University student, Convergence era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발췌한 것임

Received 21 August 2015, Revised 29 September 2015

Accepted 20 Nov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Sun-Hee, Park(Dongshin University),

E-mail: sunny681127@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 정보, 기술, 자원 및 노동력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있다. 법무부 연도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1990년 49,507명에서 2010년에는 1,261,415명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13년 4월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1,486,367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2.9%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출신국가는 중국(조선족, 한족), 미국, 일본, 필리핀, 태국, 몽골, 베트남, 러시아 등 196개국에 이른다 [49]. 나아가 202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5.4%, 2030년에는 7.6%, 2050년에는 9.2%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 [27, 29]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 주민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80년대 이후 3D 업종의 기피현상과 혼인수급의 불균형의 해결책으로 외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과 국제결혼을 권장하였기 때문이다. 해외 이주자들이 증가하면 유입국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이 충당되어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한편, 만성적인 빈곤과 실업률, 적은 일할 기회, 낮은 생활수준에 시달리는 유출국은 자국 내 송금의 증가로 인한 국가적 수입의 증대와 개인 빈곤의 해소라는 경제적 이득을 얻으므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인구 유출국과 유입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38]. 실제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화 되어감에 따라 타 문화에 대한 호기심 증가, 노동력부족 해소, 농촌총각 결혼문제 해결, 타 문화 접촉 증대, 출산율 향상, 이중 언어 역량강화, 타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 이주민의 사회 자본화 [38] 라는 다양한 긍정적 요소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들은 의사소통, 문화적 갈등, 사회시스템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정보습득 소외에 따른 사회참여 기회의 제약, 경제적 어려움, 사법권 및 행정기관 접근의 한계, 심지어는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다중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이 문화적 소수자로서 노동권적 문제, 시민권적 문제, 인권적인 문제 등 총체적인 어려움에 당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47].

이에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최근에는 그것이 국가 정책의 한 부분이 되어 정부는 사회복지, 교

육, 가족, 아동,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문제에 개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외국인 정책 예산 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이 2,105억 원으로 2011년 예산 1,993억 원에 비해 112억 원(5.6%)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1,779억 원으로 2011년 1,563억 원보다 216억 원(13.8%) 증가하였다. 그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포함된 여성가족부 예산이 약 827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50].

이처럼 정부를 비롯해 사회의 제 영역에서 다문화 관련 활동이 무르익고 있는데 비해 사회복지교육 영역에서 다문화에 대한 반영은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실천현장의 사회복지전문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혜숙 [31] 에 따르면, 활동가들은 그들의 관심 주제인 이주, 다문화, 이주민 등의 이슈들이 그들 자신의 교육배경(혹은 기존 교육시스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장중심의 재교육시스템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어서 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기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0 참고) 안에는 다문화 혹은 이주관련 교과목들이 2010년에 와서야 비법정 과목으로 포함되어 그동안 사회복지교육 영역 내부에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이 극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나아가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들이 사회복지교육기관인 대학에서부터 학생들에게 다문화관련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7, 22, 34, 35].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8, 10,] 에서는 전공특성에 따라 문화적 역량 증진 교육이 이루어져야하고 다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는 사회복지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문화 가정과 밀접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사회분야 중에는 교육과 의료가 있다. 2011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 학생(한국출생, 중도입국, 외국인자녀)은 초등학교 28,667명, 중학생 7,634명, 고등학생 2,377명으로 초등학교생이 많은데, 만5세 미만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취학할 경우 현재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언어 능력과 학습 부진 및 학교부적응을 겪고 있으며, 집단 따돌림, 정체성 혼란, 정서장애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주류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학교적응, 차별·소외감 해소 등 교육적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36].

따라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처럼,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 인종, 문화 그리고 언어의 다양한 배경들에 민감해야 하며, 이러한 다양성이 교육과정이나 교실수업에서 문제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교사들의 문화적 역량과 관련한 연구 [5, 12, 16, 17, 19, 20, 21, 23, 26, 28, 36, 37] 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다. 나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비교사에 대한 연구 [3, 4, 9] 들에서도 효과적인 다문화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교육 강좌개설 지원 사업’에 따라 2009년에 10개 대학(9개 교대, 교원대), 2010년에 20개 대학(10개 교대, 10개 국립대 사범대학)의 다문화 강좌 개설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사립대 사범대학까지 30개교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5]. 또한 2012년 3월에 공포된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교·사대 다문화 강좌 운영 현황을 교원 양성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미 다문화적 교수 역량은 교사의 전문성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

한편, 의학 분야 중에서도 외국인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간호영역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환자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친 글로벌화 추세로 ‘의료관광’사업이 국가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되면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2]. 이에, 보다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와는 다른 외국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및 의료적 상황의 문화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학계를 비롯한 실무영역에서 다문화관련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33]. 최근 종합병원 간호사 문화적 역량 수준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33] 와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에 관한 연구 [13] 에서도 문화적 역량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외 의료분야에서 연구한 의료관광 유치기관 종사자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연구 [32] 와 보건 의료 및 복지전공 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에 관한 연구

[14] 에서도 문화적 역량이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상과 같이 사람과 직접 대면하는 휴먼서비스 분야인 사회복지, 교육, 간호 영역에서 다문화 사회를 반영하는 교육이 요구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다문화 역량의 필요성이 충분히 대두되고 있지만 재교육 시스템이나 학교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아가 대학에서 어떻게 다문화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조사·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간호학 전공 대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을 비교해보고 휴먼서비스 학과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학과 간 융복합의 필요성을 타진해 봄으로써 사회복지현장에서 보다 다문화 현실을 체고하는 전문적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휴먼서비스분야 전공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휴먼서비스분야 전공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은 인구학적 특성(성별,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휴먼서비스분야 전공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문헌고찰

2.1 다문화 사회의 이해

다문화라는 개념은 다양한 수준의 주체가 나뉘어 단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 즉, 문화의 주체는 먼저 단일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문화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러한 단일 문화가 혼재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여기에서 단일 문화라는 것은 동일한 종족이나 국가에 속해 있는 특정한 소수집단이 다른 소수집단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구축한 미시적 수준의 문화가 아니라, 특정한 종족이나 국가가 다른 종족이나 국가와 무관하게 구축한 거시적 수준의 문화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발달되어 온 그러한 거시

적 수준의 문화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혼재해 있는 상태로 규정될 수 있다 [11].

김용신 [1] 은 다문화를 인종, 종족, 성, 계층, 종교집단 등 소수집단의 문화들로 지칭하면서, 이들 소수 문화간 혹은 주류사회의 문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문화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스토레이 또한 다문화를 주변문화가 제도권 내로 수용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함으로써 문화의 계서 관계를 이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4].

한편, 오화영 [15] 은 다문화란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기술적 용어(descriptive term)인 동시에 특정 사회구성을 목표로 하는 이념의 지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때 기술적 개념으로서의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 그 자체를 뜻하는데, 가령 상이한 인종 및 민족 공동체를 여럿 가지고 있는 사회는 다문화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문화 사회를 이념의 지향이라고 보는 것은 왜인가?

다문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한 사회 내에 혼재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단일한 문화 혹은 오직 그것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과 거리가 먼 개념적 허구라고 할 수 있다 [48]. 미시적 수준의 문화가 혼재해 있는 사회에서도 그 문화를 향유하는 개인이나 집단 간에 대립이나 긴장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개인이나 집단은 한 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해 왔기 때문에 심각한 긴장이나 대립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거시적 수준의 문화가 혼재해 있는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교류 혹은 공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긴장이나 대립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 거시적 문화가 혼재해 있는 사회를 지칭하기보다는 그러한 혼재에 의하여 심각한 충돌이 야기되는 사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문화적 충돌은 지속되어야 할 현상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공존과 화합으로 변화되어야 할 현상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는 사회를 규정하는 한 가지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종의 이념이라고 보는 것이다 [11]. 따라서 한마디로 다문화 사회는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추구하는 다문화주의란 폭넓고 다양

한 가치들을 반영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는 이념 체계를 가리킨다 [18]. 보다 구체적으로 트로퍼 [44] 는 다문화주의를 ①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 ②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 ③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평등한 기회에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다문화 사회는 '다원화된 인구가 존재하고, 그 각각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며, 이것이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2.2 문화적 역량

다문화 사회에 먼저 진입했던 서구의 사회복지계는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을 다양한 문화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능력으로 강조하여 왔다 [7]. 문화적 역량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다원화되어 있는 실천상황에서의 역량을 뜻하며 [43], 이러한 문화적 역량은 소수인종의 클라이언트와 일할 때에 활용되는 기술을 강화시키고 사회복지사의 다문화적 민감성 발달모형을 확립시키는데 활용된다 [42]. 한마디로 문화적 역량은 단순히 타문화 클라이언트를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문화적으로 유능한 기술과 지식, 가치를 발전시켜야 하는 능력이다 [7].

구체적으로, 문화적 역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역량'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살펴보아야 한다. 문화는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역량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겠다. 문화적 역량은 영어로 'cultural competence'라고 하는데, 여기서 competence는 능력(ability), 자격(qualification), 효율성(effectiveness)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16]. 또한 노충래·김정화 [6] 의 연구에서 인용한 럼(Lum, 2007)에 따르면, 역량은 사전적으로 충분성, 적절성(타당성), 능력을 의미하며, 특정 능력을 완벽히 수행하거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쇼트(Short)는 역량을 정의하는 관점을 네 가지로 제안하였는데, 첫째, 행동이나 수행(performance), 둘째, 지식이나 기능의 통제

자, 셋째,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능력(capability), 넷째, 사람의 자질(quality)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6]. 이러한 관점들을 포괄하여 스펜서와 스펜서(Spencer & Spencer)는 역량은 “직업에서 주어진 직무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거나 기대되는 준거에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해주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와 역량은 각각 본질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긴 하나, 이 둘을 합한 문화적 역량은 ‘해당 문화의 총체적 인간 행동양식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이해하고 그 자질을 습득하여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화적 역량에 대해 수(Sue)는 ‘총체적 인간 행동양식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대상 집단의 고유한 문화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고 대상 집단 이외의 집단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 통합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6] 고 하였으며, 엡스테인스와 헌더(Epsteins & Hunder) [40] 는 “다인종·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자 또는 기관이 해당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클라이언트의 의사소통 방식, 지식, 기술, 임상적 추론, 정서, 가치, 자기 성찰 능력 등을 일관되고 주의 깊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기영 등 [46] 은 문화적 역량을 “개인의 문화적 인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집단에게 그들의 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사회복지분야에서 문화적 역량은 한마디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민감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회복지기관과 개인이 다문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행동이나 태도, 정책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레플리와 페더슨(Lefley & Pederson)은 문화적 역량의 3가지 구성요소를 밝힘으로써 문화적 역량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였다 [7]. 여기에는 인식, 지식, 기술 개발이 포함되는데,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문화적 역량은 지식, 기술, 문화적 가치의 인식이라는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7]. 특히 비튼티 등 [39] 은 사회복지실천 및 상담 등의 휴먼서비스 분야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의 주요 구성요소로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으로 적절한 기술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수(Sue)는 실

천가들이 문화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문화와 실천가 자신의 문화적 차이 및 언어적 차이를 인식하고, 클라이언트 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출신국가에 대한 배경과 입국요인, 클라이언트의 세계관과 의사소통 양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6].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는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의 휴먼서비스분야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광주·전남지역은 본 논문의 2장에서 밝힌 바처럼 결혼이민자 중 등록외국인의 집중정도가 충남지역 다음으로 높은 지역으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농촌생활의 어려움과 문화차이에 대한 갈등, 자녀양육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원조할 휴먼서비스분야 전공 학과는 다문화 관련된 교육을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휴먼서비스분야 전공 학과인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사범대와 유아교육학과 포함), 간호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4년제 대학교 총 12개에서 위의 전공을 하고 있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을 조사해 보았다. 이에 조사대상자는 총 2,190명으로, 이는 조사대상 학과 총 50개 중 각 대학의 학교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원수를 참고하고 그 외는 학과조교에게 문의하여 파악한 수이다.

설문조사는 2012년 11월 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연구자가 각 학과의 학과장과 조교에게 조사취지를 설명한 후 각 대학의 학과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전달하고 조사대상자가 자기기입하는 방식으로 응답한 것을 수거하였다. 조사에 응한 학생 수는 1,802명이고 수거된 설문지는 1,443부로 수거율은 80.1%였다. 이 중 성실하게 응답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설문지 1,343부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3.2 설문지 구성 및 척도

3.2.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나이, 전공, 전공에 대한 만족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총 4개 문항이다.

3.2.2 다문화 경험

다문화 경험은 학교 교육과 연관성이 없는 경험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이다. 여기에는 외국 경험, 외국인 경험, 외국어 경험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 경험에는 외국방문 여부, 방문 빈도, 방문 목적, 그리고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지와 거주 기간을 포함하였다. 외국인 경험에서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지와 몇 명의 친구가 있는지, 또한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 친척, 친구 등이 있는지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가능성을 외국어 경험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총 6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2.3 문화적 역량

휴먼서비스분야에서 다양한 문화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능력으로 '문화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적 역량이란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다문화 역량 측정은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여 점수화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사회복지현장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화적 기술을 제외한 문화적 인식과 지식만을 측정하였다.

문화적 인식 수준의 측정을 위해서 본 조사는 쿠에바스(2002)가 개발한 문화적 인식척도(Cultural Awareness Scale: CAS)를 민성혜·이민영 [8] 이 한국적 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서울, 경기, 충청도 3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문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는 대전과 충남 지역의 4년제 대학 두 곳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박근수·신희정 [10] 의 연구에서도 사용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총 3개 영역에 걸쳐 12개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영역1은 문화차이 인식(awareness of the differences in cultural)으로 4개 문항, 영역2는 자기가치 인식(awareness of personal values, beliefs, and biases)으로 3개 문항, 영역3은 타인가치 인식(awareness of the values, beliefs, and biases of others)으로 5개 문항이 포함되고,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때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점수는 표준화된 인식 Cronbach 'α가

0.772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하위영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차이 인식이란 타 집단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자인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자기가치인식은 각 문화권속에 속하는 개인 즉,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기인식으로서 대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이 그들의 가치와 경험되는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타인가치인식은 문화차이와 자기가치인식을 타인에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타인에 대해 겸손, 존경, 개방성, 비심판적 태도, 사회정의 등의 가치를 견지하는 것이다.

한편, 다문화 지식수준의 측정을 위해서는 노충래·김정화(2011)가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측정을 위해 개발한 다문화 역량 척도 중 다문화 지식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4개 영역에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 영역 중 다문화 지식에 해당하는 7개 문항을 본 조사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 때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점수는 표준화된 인식 Cronbach 'α가 0.770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4. 조사결과

4.1 조사응답자 특성

4.1.1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휴먼서비스 관련 전공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생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성별, 나이, 전공, 전공만족으로 구분되었다. 조사응답자 1,343명 중 남학생은 265명(19.7%), 여학생은 1,078명(80.3%)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휴먼서비스관련 분야에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이 고용되고, 따라서 관련 학과에 여학생이 많이 입학하기 때문이다. 조사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24.30세로 나타났다. 국내 교육제도 상의 각급 학교 입학연령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대학 4학년의 나이는 23세이지만, 본 조사에 응답한 학생들 중에는 복학생과 만학도가 포함되어 일반 연령보다는 다소 높은 평균연령을 보였다.

전공학과별로 구분하면, 사회복지학과 학생은 322명(24.0%), 교육학과 학생은 522명(38.9%), 간호학과 학생은 499명(37.2%)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교육학전공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공에 대한 만족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41명(62.6%)이 '만족한다'고 하여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 442명(32.9%), '만족하지 않는다' 60명(4.5%) 순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들은 전공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Factors		N	%
Gender	male	265	19.7
	female	1,078	80.3
Age(mean)	24.30	1,343	100.0
Major	social welfare	322	24.0
	pedagogy	522	38.9
	nursing science	499	37.2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841	62.6
	normal	442	32.9
	unsatisfied	60	4.5

4.2 문화적 역량 특성

4.2.1 조사응답자의 문화적 역량

조사에 응답한 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 수준은 <Table 2>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문화적 역량 수준은 평균 3.49점으로 나타났는데, 5점 만점인 척도를 사용한 만큼 조사대상자들이 중간 이상의 문화적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민성혜·이민영 [8]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역량 수준이 3.70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문화차이를 인식하는 영역에서 평균 3.65점,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영역에서 평균 3.89점, 타인의 가치를 인식하는 영역에서 평균 3.78점, 다문화에 대한 지식영역에서는 평균 3.03점으로 나타나 자신의 가치 인식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다문화 지식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위요인별 점수 차이는 휴먼서비스분야 전공학생들이 자기와 타인과 같이 '사람'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민성혜·이민영 [8]의 연구는 2009년에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는 2012년에 조사되어 그 동안 다문화와 관련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Table 2) Overall average Multicultural competence

Factors	N	Minimum	Maximum	M	SD
Multicultural competence (Total)	1342	1.58	4.79	3.49	.40
Recognition difference of culture,	1343	1.00	5.00	3.65	.64
Own value perception	1342	1.00	5.00	3.89	.61
Recognition value others	1343	1.00	5.00	3.78	.59
Multicultural knowledge	1343	1.14	5.00	3.03	.58

4.2.2 조사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문화적 역량

4.2.2.1 성별과 문화적 역량 특성

응답한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문화적 역량 결과는 <Table 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M=3.511)의 문화적 역량 점수가 남학생(M=3.421)보다 높았다. 하위 영역별로는 문화차이 인식에서 남학생은 평균 3.503점을, 여학생은 평균 3.687점을 보였고, 자기차이 인식에서 남학생은 평균 3.803점, 여학생은 평균 3.917점을, 그리고 타인차이 인식에서 남학생은 평균 3.710점, 여학생은 평균 3.794점을 보여 문화를 인식하는 측면에서는 이상의 하위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다문화 지식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점수는 3.003, 여학생의 평균점수는 3.033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A Comparison of average according to gender

Factors		N	M	SD	t	sig
Multicultural competence (Total)	m	265	3.421	.436	-3.323	.001
	f	1077	3.511	.385		
Recognition difference of culture,	m	265	3.503	.700	-4.209	.000
	f	1078	3.687	.620		
Own value perception	m	265	3.803	.674	-2.729	.006
	f	1077	3.917	.595		
Recognition value others	m	265	3.710	.630	-2.074	.038
	f	1078	3.794	.581		
Multicultural knowledge	m	265	3.002	.654	-.743	.458
	f	1078	3.033	.566		

4.2.2 전공과 문화적 역량 특성

전공별 문화적 역량 결과를 보면,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4>와 같이, 간호학과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 총점은 평균 3.5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평균 3.495점, 그리고 교육학과 학생들은 평균 3.420점 순으로 밝혀졌으며, 세 학과의 다문화 역량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A Comparison of average according to major

Factors		N	M	SD	scheffe	F	sig
Multicultural competence (Total)	social welfare	322	3.495	.391	b	18.285	.000
	pedagogy	521	3.420	.396	a		
	nursing science	499	3.568	.388	c		
Recognition difference of culture,	social welfare	322	3.609	.684	a	8.543	.000
	pedagogy	522	3.587	.643	a		
	nursing science	499	3.743	.597	b		
Own value perception	social welfare	322	3.848	.617	a	6.792	.001
	pedagogy	521	3.846	.658	a		
	nursing science	499	3.974	.550	b		
Recognition value others	social welfare	322	3.763	.612	a,b	8.076	.000
	pedagogy	522	3.710	.611	a		
	nursing science	499	3.857	.548	b		
Multicultural knowledge	social welfare	322	3.087	.521	b	11.468	.000
	pedagogy	522	2.932	.592	a		
	nursing science	499	3.087	.602	b		

하위영역에서도 4개 영역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문화차이 인식에서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M=3.609)과 교육학과 학생들(M=3.587)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복지학과와 교육학과 학생과 간호학과 학생들(M=3.743)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가치 인식에서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M=3.848)과 교육학과 학생(M=3.846)들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 두 학과 학생 집단과 간호학과 학생들(M=3.974)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타인가치 인식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사회복지학과 학생들(M=3.763)과 교육학과 학생들

(M=3.710)에 비해 간호학과 학생들(M=3.857)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앞의 두 학과 학생들과 간호학과 학생들 사이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 지식에서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M=3.087)과 간호학과 학생들(M=3.087) 사이에서는 점수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 두 학과 학생들과 교육학과 학생들(M=2.932)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앞의 두 전공에 비해 교육학과 학생들의 다문화 지식에 관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간호학과 학생이 문화차이 인식, 자기가치 인식, 타인가치 인식에서 다른 학과 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다문화 지식에서는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교육학과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간호학과 학생이 모든 하위 영역의 점수에서 다른 학과 학생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것들이 학과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4.2.3 다문화 경험과 문화적 역량

4.2.3.1 외국경험과 문화적 역량

외국방문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 결과를 보면, 외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M=3.532)의 학생들이 없는 경우(M=3.453)의 학생들보다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5> A Comparison of average experience on foreign visits

Factors		N	M	SD	t	sig
Multicultural competence (Total)	yes	670	3.532	.398	-3.685	.000
	no	671	3.453	.393		
Recognition difference of culture,	yes	670	3.687	.639	-2.169	.030
	no	672	3.612	.639		
Own value perception	yes	670	3.922	.595	-1.537	.091
	no	671	3.865	.629		
Recognition value others	yes	670	3.809	.595	-1.984	.047
	no	672	3.745	.587		
Multicultural knowledge	yes	670	3.079	.606	-3.272	.001
	no	672	2.975	.557		

하위영역별로는 문화차이 인식과 타인가치 인식, 다문화 지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화차이 인식에서는 외국방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M=3.687) 경험이 없는 학생들(M=3.612)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타인가치 인식에서는 외국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M=3.809)가 경험이 없는 경우(M=3.745)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지식 또한 외국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M=3.079)가 없는 경우(M=2.975)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하위 영역 중 자기가치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고).

외국거주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 결과를 보면,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M=3.560)가 없는 경우(M=3.485)보다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위영역에서는 다문화 지식에서만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M=3.150)가 없는 경우(M=2.975)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차이 인식, 자기가치 인식, 타인가치 인식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에 대한 인식보다는 지식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고).

<Table 6> A Comparison of average to foreign Housing Experience

Factors		N	M	SD	t	sig
Multicultural competence (Total)	yes	137	3.560	.483	-2.077	.038
	no	1204	3.485	.385		
Recognition difference of culture,	yes	137	3.650	.702	.003	.998
	no	1205	3.650	.633		
Own value perception	yes	137	3.910	.626	-.330	.741
	no	1204	3.892	.611		
Recognition value others	yes	137	3.745	.646	.679	.497
	no	1205	3.781	.585		
Multicultural knowledge	yes	137	3.224	.695	-4.209	.000
	no	1205	3.004	.566		

4.2.3.2 외국인 경험과 문화적 역량

외국인 친구에 따른 문화적 역량 결과를 보면,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M=3.550)가 없는 경우(M=3.469)보다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영역에서는 자기가치 인식과 다문화 지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가치 인식에서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M=3.974)가 없는

경우(M=3.860)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지식에서도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M=3.150)가 없는 경우(M=2.975)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하위 영역 중 문화차이 인식과 타인가치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위영역의 자기가치 인식과 다문화 지식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Table 7> 참고).

<Table 7> A Comparison of average to whether a foreign friend

Factors		N	M	SD	t	sig
Multicultural competence (Total)	yes	398	3.550	.414	-3.411	.001
	no	944	3.469	.387		
Recognition difference of culture,	yes	398	3.631	.666	.704	.482
	no	945	3.658	.629		
Own value perception	yes	398	3.974	.601	-3.111	.002
	no	944	3.860	.614		
Recognition value others	yes	398	3.791	.600	-.514	.607
	no	945	3.772	.588		
Multicultural knowledge	yes	398	3.150	.614	-5.071	.000
	no	945	2.975	.563		

가족·친척·친구 중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거나 없는 경우와 문화적 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영역으로는 다문화 지식에서만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친척·친구 등이 있는 경우(M=3.124)가 없는 경우(M=3.000)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able 8> 참고).

<Table 8> A Comparison of average contingent upon marrying a foreigner

Factors		N	M	SD	t	sig
Multicultural competence (Total)	yes	286	3.526	.432	1.582	.114
	no	1055	3.484	.387		
Recognition difference of culture,	yes	286	3.614	.684	-1.082	.280
	no	1056	3.660	.628		
Own value perception	yes	286	3.908	.622	.430	.667
	no	1055	3.890	.610		
Recognition value others	yes	286	3.788	.593	.332	.740
	no	1056	3.775	.592		
Multicultural knowledge	yes	286	3.124	.628	3.195	.001
	no	1056	3.000	.569		

4.2.3.3 외국어 경험과 문화적 역량

의사소통가능여부에 따른 문화적 역량 결과를 보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M=3.562)가 문화적 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런 편이다'(M=3.500), '가능하지 않다'(M=3.466) 순으로 문화적 역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다문화 지식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가능하다'(M=3.182)가 가장 높고 '그런 편이다'(M=3.078), '가능하지 않다'(M=2.9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차이 인식, 자기가치 인식, 타인가치 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9> 참고).

다문화 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수준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외국방문경험이 있거나 외국거주경험이 있는 경우,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 문화적 역량이 높았고, 이 모두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9> A Comparison of average to about foreign languages as possible

Factors		N	M	SD	t	sig
Multicultural competence (Total)	possible	159	3.562	.469	2.662	.047
	normal	609	3.500	.388		
	impossibility	573	3.466	.382		
Recognition difference of culture,	possible	159	3.715	.637	1.829	.140
	normal	609	3.608	.656		
	impossibility	574	3.676	.622		
Own value perception	possible	159	3.971	.971	1.415	.237
	normal	609	3.904	.616		
	impossibility	573	3.862	.591		
Recognition value others	possible	159	3.727	.668	1.158	.324
	normal	609	3.760	.587		
	impossibility	574	3.811	.574		
Multicultural knowledge	possible	159	3.182	.741	11.114	.000
	normal	609	3.078	.546		
	impossibility	574	2.928	.558		

5. 결론 및 제언

광주·전남 지역 4년제 대학의 휴먼서비스 전공분야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적 역량 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휴먼서비스 분야 전공학생들의 문화적 역량 수준은 평균 3.49점으로 5점 만점의 척도로 볼 때 중간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

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수준은 성별에 따라 여학생(M=3.511)이 남학생(M=3.421)보다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별로는 간호학과 전공학생의 문화적 역량 수준이 가장 높고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국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은 여행이나 친지방문, 견학,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사이에는 문화적 역량에 차이를 보였다. 외국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의 문화적 역량 평균치는 3.560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3.532점보다 약간 높았다. 또한 외국인 친구가 있거나, 외국어가 가능한 경우에 문화적 역량에 차이를 보였는데, 외국인 친구가 없거나, 외국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보다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기간이라도 외국을 방문하였거나, 외국 거주 경험이 문화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하고 또한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 외국인 친구와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가능성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서울과 경기, 충청도 등의 4년제 대학교 일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성혜·이민영(2009)의 연구와 비교하면, 문화차이 인식에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점수는 0.06점 낮고, 자기가치 인식에서는 0.11점 높으며, 타인가치 인식은 0.13점 높았지만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다. 즉 휴먼서비스 전공분야 대학생이나 일반 전공분야 대학생이나 다문화 역량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휴먼서비스가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면서 동시에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에 관해서는 교육이 그 분야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정책제안과 다문화 교육에 대해 제언하였다.

휴먼서비스분야의 대학 교육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해외 인턴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을 확대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도 해외 인턴십은 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데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은 인턴십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5년 2년제 대학을 시작으로 2009년 4년제 대학까지 확대되면서 참여인원은 1,212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 982명, 2011년 962명, 2012년 846명, 2013년 760명(계획)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침체와 더불어 자비를 보태어서 인턴십에 참가할 만한 개인적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인턴십을 기피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휴먼서비스 전공분야는 일반 전공과 달리 문화적 민감성이 높고 요구되는 인간대면역역으로, 정부는 개인의 가정형편과 무관하게 이 분야 대학생들이 외국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익히고 다문화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비 인턴십'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 차원에서 국내 젊은이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만한 해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가구 소득이 낮아서 인턴십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인턴십 기간에 따른 소요경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대학 차원의 제언은 크게 교과과정에 따른 교무행정 부분과 국내외 다문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학생 지원 부분으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학의 교무행정은 교육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터라 일정 부분 정부차원의 제언에도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를테면, 교육부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다문화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같이 휴먼서비스를 전공분야로 하는 학과에 대해서는 다문화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정선영 [30]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대학 110개교 중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교는 14개교로 12.7%에 불과하였고, 본 연구자가 조사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4년제 대학교 11개교 중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교는 4개교로 36.4%에 불과하였다. 물론 교과목 개설은 전공 학과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부응하여 대학이 다문화서비스 전문 인력의 공급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대학은 학생의 활동지원에 일정 정도의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 바, 특히 학생의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위한 국내 자원봉사활동에도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과 교육학과 학생들이 멘토십을 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비를 교과목에 배정했던 사례처럼, 학생들의 교육 및 봉사 활동에 대한 대학지원은 교수와 학생에게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대학생들의 해외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외국어 수준 등 지원대상이 되는 기준이 엄격하여 개인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기회 접근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따라서 일부의 학생들은 대학 외의 기관을 통해서 해외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각 대학마다 전담 기관을 두어 학생봉사를 장려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외 및 국내 다문화 관련 자원봉사에 대학의 지원이 확대되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K-CESA(대학생핵심역량진단)를 활용하여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국제적 감각과 자세 및 이에 필요한 능력으로서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초능력으로 평가하고 있어, 국내 다문화 양상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에 맞는 다문화적 역량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그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문화적 역량 조사에서 4년제 대학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일부 전문대학이 누락된 점은 4년제 출신이든 2년제 출신이든 현장에서는 함께 실천하는 활동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계를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한 것과 비교해 연구 설계 및 분석 과정이 너무 단편적이다. 전공별, 개인의 경험별 문화역량의 차이 검증만을 실시 한 것은 다양한 변인 간의 상호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분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고 변인간의 상호관련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This dissertation is a doctoral dissertation to fix the source indicating that excerpts.

REFERENCES

- [1] Yongsin Kim, The Analytical Approach to Multicultural Concepts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Social studies education*, Vol. 47, No. 2, pp. 5-22, 2008.
- [2] Yeunhee Kim. Diversification in Korea and cultural competence in social welfa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35, pp.35: 117-144, 2007.
- [3] Jungdeok Kim, Kyunghwan M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Disposition and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Preservice Teachers. *The Journal of Cultural Education*, Vol. 17, No. 3, pp. 193-226, 2011.
- [4] Jungdeo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Disposi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Efficacy in Prospective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28, No. 2, pp. 119-140, 2011.
- [5] Eunhee Noh, A Study on Korean Language Teacher Education for Developing Multicultural Competencies.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90, No. 2, pp. 113-148, 2011.
- [6] Choongrai Nho, Jeonghwa Kim, Development of Korean Cultural Competency Scale for Human Service Work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3, No. 2, pp. 207-231, 2011
- [7] Sunyoung Min, An Exploratory Study on Cultural Competence of Social Worker. *Students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1, pp. 1-28, 2008.
- [8] Sunghye Min, Minyoung Lee, A Exploratory Study about the Cultur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the Cultural Awaren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1, No. 1, pp. 183-206, 2009.
- [9] Jongeun Moon, Mikyung Ju, A Case Study of Multicultural Mathematics Teacher Education Course: An Analysis of Course Effect on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Multicultural Competence.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Vol. 13, No. 3, pp. 103-132, 2010.
- [10] Keunsoo Park, Heejung Shin,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cultur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regional studies*, Vol. 19, No. 4, pp. 1-72, 2011.
- [11] Chaehyeong Park,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2, No. 1, pp. 141-159, 2012.
- [12] Younghwa Sung, Jiyoung Lee, Validation of a multicultural efficacy scale for young children's teacher.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19, No. 4, pp. 177-187, 2010.
- [13] Wonoak Oh,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Vol. 17, No. 4, pp. 222-229, 2011.
- [14] Wonoak Oh, woosik Jung, Hyunggon Kang, Eunhye Kim, Minhyun Suk, Cultural Knowledge, Empathy and Cultural Sensi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ealth And Welfa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23, No. 2, pp. 192-199, 2010.
- [15] Hwayoung Oh,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ies -The Meaning of Hong-Ilk-In-Gan Thought. *Journal of Sundo Culture*, Vol. 9, pp. 356-397, 2010.
- [16] Gabjung Yoon, Mijung Kim, Development of Cultural Competency for Preschool Teacher in the Multicultural Era.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53, No. 4, pp. 55-85, 2008.
- [17] _____, Components of cultural competency for preschool teachers in the multicultural era. *Journal of Childhood Education*, Vol. 30, No. 3, pp.

- 169-194. 2010.
- [18] Injin Yoon, multiculturalism by state and multiculturalism by peopl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8, No. 1, pp. 251-291, 2007.
- [19] Jinsook Won, A study of developing Elementary teachers training strategies for empowering Multicultural KSL Teacher Competence.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139, pp. 81-113, 2012.
- [20] Gyurim Lee, Youngo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multicultural efficacy and the professional disposition.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6, No. 5, pp. 335-352, 2011.
- [21] Kyunghwa Lee, Minkyong Hong, The analysis on multicultural efficacy and demand for multicultural program of kindergarten teachers. *Symposium of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0.
- [22] Mirim Lee, How are Social Workers acquiring Cultural Competence in Social Work Practice? Doctoral Dissertation of Hannam University, 2011.
- [23] Byungjun Lee, What is multicultural competencies? *Symposium of The Korean Society For Study of Educationalidea*, Vol. 37, pp. 1-11, 2007.
- [24] Youngjea Lee, How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Multiculture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The divergency and consent frame.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19, No. 2, pp. 172-204, 2011.
- [25] Jaekyeong Lee, Choojae Lee,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Worker's Cultural Competence. *Social Science Research*, Vol. 88, No. 1, pp. 183-204, 2012
- [26] Juengeun Lee, The Comparison of Teacher's Competence on Multicultural Education between General Education Teachers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Special Education Research*, Vol. 11, No. 1, pp. 81-105, 2012.
- [27] Mihye Chang, Hyeyoung Kim, Shungwha chung, Hyojung Kim, Korean Multicultural Policy and Political Countermeasures. *Research Report b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Vol. 2, pp. 236-293, 2008.
- [28] Insil Chang, Exploring and Developing Model of Teacher Curriculum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1, No. 2, pp. 281-305, 2008.
- [29] Kiseon Chung, Kwanghee Jun, Kisoo Eun, Seokho Kim, Dongkwan Kang, Jeongwoo Rhee, Seori Choi, Research on Policy Direction of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A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s in Korea. *2011 Service Report by Ministry of Justice*, 1-172, 2011.
- [30] Sunyoung Jung, Current State of and Suggestions for Multicultural Social Work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6, No. 2, pp. 1-22, 2013.
- [31] Hyesuk Chong, Understanding of the field for immigrant workers and its implication for social welfare edu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11, pp. 97-128, 2010.
- [32] Kinam Jin, Jinjoo Kim, Donghyo Sung, Seulki Hwang, Won Ju Jung, Cultural Competence of Global Healthcare Providers in Healthcare Setting: Case Study of Seoul A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0, No. 2, pp. 581-598, 2010.
- [33] Duckhee Chae, Yunhee Park, Taehwa, Lee Kyeonghwa Kang,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y of General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8, No. 1, pp. 76-86, 2012.
- [34] Soyun Choi, A Study on the Preceding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of Social Workers Working a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39, pp. 113-141, 2013.
- [35] Wonhee Choi, Yeonsoon Choi, Hyeji Choi, Study on the Effects of Cultural Competence on the Empowerment of Social Worker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1, No. 2, pp. 1-34, 2009.
- [36] Chungok Choi, Kyunghwan Mo, Investigating Multicultural Efficacy of Teachers in Gyeonggi Province.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 39, No. 4, pp. 163-182, 2007.

[37] Beongwan Chu, Jeonghye Yang, Jihyun Yoon, Hyungyu Kwak, Hyekeyoung Hwang, Development and Effective Analysis of Multicultural Training Program for Nursery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Its Effect.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Vol. 22, No. 3, pp. 15-34, 2011.

[38] Seungjun Han, Governance strategy according to developmental phases of a multicultula society.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Vol. 3, No. 2, pp. 99-122, 2008.

[39] Bitonti, C., E. Albers, and T. Reilly. "Multicultural Competence in Nevada Human Services: A Statewide Survey."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Vol. 4, No. 4, pp. 67-83, 1996.

[40] Epsteins, R, and E. Hunder. "Defining and Assessing Professional Competenc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7(2), 226~235. 2002.

[41] Hasenfeld, Y. *Humem Services as Complex Organization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92.

[42] Ho PhD, M. K. Use of Ethnic-Sensitive Inventory(ESI) to Enhance Practitioner Skills with Minorities.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Vol. 1, No. 1, pp. 57-68, 1990.

[43] Manoleas, P. "An outcome approach to assess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MSW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Vol. 3, No. , pp. 43-58, 1994.

[44] Troper, Harold. "Multiculturalism".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s*, edited by Paul Robert Magoci(ed.).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997-1006, 1999.

[45] Weiner, Myron E. *Humem Services Management: Analysis and Applications*: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1990.

[46] Giyoung Lee, Myungmin Choi, Hyunmi Choi, Chungchin Kim, 『Multicultural social work』 Seoul: Hakjisa, 2009.

[47] Jungae Song, Haeun Chung, 『Social work with families 』 Gyeonggi: Yangseowon. 2007.

[48] Jihyun Im, at all, 『The struggle of memory and history』 Seoul: Samin, 2002

[49] Ministry of Justice.http://www.moj.go.kr. Monthly Report of Policy Statistics for foreigners, 2013.

[50] Policy Planning Committee for foreigners Ministry of Justice http://www.immigration.go.kr. 2012 Policy Planning for foreigners, 1-391. 2012.

박 소 정(Park, So Jeong)



- 2006년 8월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 석사
- 2013년 8월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15년 4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 여성복지, 다문화사회복지

· E-Mail : p_sj2@hanmail.net

배 양 자(Bae, Yang Ja)



- 1990년 2월 : 전남대학교 행정학 석사
- 2010년 2월 :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2012년 8월 : 광주대학교사회복지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다문화사회복지, 가족복지, 사회복지

· E-Mail : yjbae19@hanmail.net

박 순 희(Park, Sun Hee)



- 2009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12년 3월 : 동신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다문화사회복지, 가족복지

· E-Mail : sunny681127@hanmail.net

김 선 애(Kim, Sun Ae)



- 2011년 3월 : 경인대학교 아동보육학과, 아동미술학과 초빙교수
- 2013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학 박사수료
- 2015년 2월 ~ 현재 : 경인여자대학교 아동미술교육학과 시간강사
- 관심분야 : 아동상담심리, 아동복지
- E-Mail : 5and9@hanmail.net